



Teen STAR 여덟 번째 만남

알성달

서울에는 성북동이라고 하는 유난히 언덕이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언덕길을 올라 거의 꼭대기에 다다를 무렵 많은 아기가 새 가정을 기다리며 함께 살고 있는 '성가정 입양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께서 설립한 '성가정 입양원'은 친권이 포기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입양 기관입니다.

언젠가 성북동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서 3개월 정도의 중학생을 위한 틴스타 수업을 마치면서 틴스타반 친구들에게 생명과 관련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어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방문했던 친구들이 아직 어려 그곳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잠깐 동안 아이들 모습도 보고, 방문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영상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물에는 배부른 한 미혼모가 앞으로 태어나 입양될 자신의 아기를 위해 쓴 기도의 글을 읽어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떠나보낼 아기에 대한 엄마의 사랑과 아기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두근두근 그리워할 절절한 마음이 화면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뒤이어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부쩍 궁금한 것이 많아진 친구들의 좀 더 적극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선생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입양을 보내야 한다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미혼모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기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기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질문은 그 뒤 또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틴스타 수업을 통해 만나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질문과 생각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 십대인데 임신을 했다면 낙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알길이 창창한데 그 애를 낳으면 어떡해요?” “여성에게는 원치 않는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간으로 임신했다면, 어떻게 그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 아기를 낳게 된다면 엄마는 아기를 보면서 평생 고��스러워 할 거예요.” “제 친구는 꽤 괜찮은 친구예요. 몇 년간 사귀던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끝까지 책임지느라 낙태할 때 병원에도 함께 가더라구요. 그 정도면 책임감 있는 친구죠.”

CUM 친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해봅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친한 친구가 임신한(또는 임신시킨) 것 같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녀(또는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의 질문과 생각을 접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아! 이번 만남에서는 입양과 미혼모, 그리고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바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 그 무엇이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딱 한 가지씩만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뽑게 될까요? 이러저러하게 소중한 것들을 제치고 그중에 가장 선두 자리에 있을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감히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 소중한 생명, 따라서 누군가에게도 더없이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속 십대 소녀의 임신과 한 아기의 생명은 지금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이 임신한 소녀와 새 생명은 축복받을 기회조차 얻어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인사를 건네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여성이 임신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임신이 되는 순간 여성의 몸은 엄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태된 아기는 이제 엄마의 생각, 감정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진 속 소녀처럼 엄마의 생각뿐만 아니라 주위의 비난과 몰이해, 그리고 받아들여짐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한 생명에게 위협으로 전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이런 모든 상황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일지라도 아기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엄마와 아기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아기 천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 채 평온하게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생명임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아기와 엄마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기 예수와 우리의 보호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님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계신 성모님의 부드러움, 인자한 모습은 엄마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놓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태어나는 생명과, 또 그렇지 못한 생명으로 구별 지어 바라봐도 괜찮은 것일까요?

생명,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혼인을 통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새 생명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혼인을 통해 한몸이 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성적 결합을 맺게 되는데, 새 생명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내어주고 하나가 되는 성(sex)을 통해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을 전달하는 성(sex)은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새 생명은 이미 절대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창조되어 그 모습을 닮은 우리 모두의 생명은 그렇게 누구랄 것 없이 정말 소중한답니다.



옆의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의 루뱅가톨릭대학병원에서 한 여성의 자궁 수술 도중 난자가 난포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우리는 배란(排卵)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난소에서 난자를 보호하며 점점 자라고 있던 난포로부터 난자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난소에서 빠져나온 난자는 난관으로 들어가 새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난자만으로는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려면 남성의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 남성은 성관계를 통해 정자를 사정하게 됩니다. 보통 남성이 사정할 때 배출되는 정자는 2~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정(射精)된 정자 대부분은 난자가 기다리는 난관에 이르는 험난한 과정에서 죽게 되고, 이 험난한 과정을 이겨낸 단 하나의 정자만이 난자와 만나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이를 수정(受精)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생명이 생겨나는 것은, 그 생명의 시작은 정말이지 중요하고도 매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이렇게 중요하고 매혹적인 창조성에 의해 생겨났고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향한 창조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정말로 우리는 하느님을 쏙 빼닮았네요. 여성의 몸, 남성의 몸으로 함께 사랑하며 생명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이렇게 소중한 힘을 지녔으니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왜곡된 시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버리는 일, 성폭행당하여 생식기뿐 아니라 많은 장기 부분이 망가져 버린 어린 소녀의 일,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낙태, 자신이 HIV(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 감염자인 줄 알면서도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한 어느 남자의 일, 교실 안 폭력과 왕따로 인한 죽음, 아빠와 아들과의 동반자살, 나보다 행복해 보여 살인을 했다는 어느 남자의 왜곡된 시선....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모두 근본적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여 생겨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명은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 안에서 생명을 건넬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느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번 만남에서는 CUM 친구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노랫말을 소개해 봅니다. 이 노래에서처럼 아기들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임무는 무엇일까요?

“Mary Did You Know”

마리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Mark Lowry 와 Buddy Greene 작사

당신의 아기가 언젠가 물 위를 걷게 되리란 것을	당신의 아기가 언젠가 물 위를 걷게 되리란 것을
당신의 아기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구하리란 것을	당신의 아기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구하리란 것을
당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기가 왔다는 것을	당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기가 왔다는 것을
당신이 나온 이 아기가 곧 당신을 구원하리란 것을	당신이 나온 이 아기가 곧 당신을 구원하리란 것을
당신의 아기가 눈 먼 이를 보게 하리라는 것을	당신의 아기가 눈 먼 이를 보게 하리라는 것을
당신의 아기가 손으로 폭풍을 잠재우리란 것을	당신의 아기가 손으로 폭풍을 잠재우리란 것을
천사들이 밟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천사들이 밟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당신이 작은 아기에게 키스할 때	당신이 작은 아기에게 키스할 때
하느님의 얼굴에 키스한다는 것을	하느님의 얼굴에 키스한다는 것을

Cum 김혜정 베로니카(한국틴스타 교사)